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9.13.(수) 배포 즉시	사진	추후 게시	자료	x	매수	2
------	---------------------	----	----------	----	---	----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과 장	안치권 (031-8008-8120)
		팀 장	정진호 (031-8008-8102)
		담당자	김지태 (031-8008-8103)

## 경기도,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2030년까지 5천억 원 규모 중소기업자금 지원

- 제2차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 개최

- 13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자금 지원 정책 방안’ 논의
  - 한국은행 경기본부, 2030년까지 5천억 원 규모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해 연계보증 확대
- 염태영 경제부지사 “중소기업 지원과 보증 지원방안 마련할 것”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13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고 신행사에서 ‘2023년 제2차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금융 자금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양 기관이 지역 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지원방안 ▲지역 신용보증 관련 조사 연구 협력 강화 방안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협의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한도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연계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지역 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 협력을 다짐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긴축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 건전성을 강화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